

제58권: 2009. 9. 4.

최근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요 약	1
1. 머리말	3
2.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황	4
3.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 및 전망	11
4. 세계의 유기농업 실천현황 및 시장규모	14
5. 시사점	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김창길 연구위원 02-3299-4265 changgil@krei.re.kr

자료 문의: 이성규 (정보플라자) 02-3299-4213 sklee@krei.re.kr

- 『KREI 농정연구속보』는 정책 담당자, 농업인, 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간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미래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2000년대 초반까지 매년 100% 이상의 급증세를 보였으며 최근 5년 동안 증가율이 다소 둔화 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5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약 47% 증가한 3조 2천억 원으로 전체 농산물시장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여 틈새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도 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 트렌드의 확산으로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매년 20% 내외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친환경농산물인 녹색식품을 전략적 수출농산물로 육성하고 있고, 일본은 국내산 유기농산물의 부족으로 유기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친환경농산물 시장거래 규모는 저농약 인증농산물 생산 및 수요증가세 둔화로 전년대비 약 17% 증가한 3조 7천억 원으로 전망된다.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되는 2015년에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이후 증가세로 회복되어 2020년에는 전체 농산물 시장 거래액의 약 20%인 7조 1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의 수요창출(학교급식 확대 등)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유기농산물 시장규모의 성장세는 향후 국내 유기농산물 생산 및 소비확대에도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으므로 선진국의 유기농 육성 정책과 유기농 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1. 머리말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제2항),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와 가축사료 첨가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을 투입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지칭한다.

※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사용한 무농약 농산물,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 이내 사용하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를 사용한 저농약 농산물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되고, 2015년부터 저농약 인증은 완전 폐지된다.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수준의 증가와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기가공품의 원료로 수입유기농산물의 인증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08년에 약 3조 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7% 정도 급성장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로 증가하여 틈새시장(niche market)에서 주류시장(mainstream market)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도 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 트렌드의 확산으로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

준이 높은 북미, 유럽 및 일본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매년 2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친환경농산물인 녹색식품을 전략적 수출농산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내산 유기농산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외인증 유기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내외적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최근의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인증실태, 수입유기농산물 현황,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와 전망, 유럽과 북미 등 세계 유기농산물 생산 및 시장규모,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유기농산물 생산·가공 실태 정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황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국내생산 인증실적을 보면, 농가수는 2000년 2,448호에서 2008년 172,553호로 매년 70.2% 증가, 인증면적은 2000년 2,039ha에서 2008년 174,107ha로 매년 74.4% 증가, 인증량은 2000년 35,406톤에서 2,188,311톤으로 매년 67.4% 급증하였다<표 1>.

- 2000년대 초반(2000~2003년)에 전체 인증면적 증가율은 122.7%의 급증세를 보였고, 최근 5년동안(2004~2008년)에는 전체 인증면적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실적을 보면 전년대비 인증면적 기준 41.7%, 인증농가수 기준 3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유형별로 연평균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유기농산물이 2000년 296ha에서 2008년 12,033ha로 매년 58.9% 증가, 무농약은 2000년 876ha에서 2008년 42,938ha로 매년 62.7% 증가, 저농약은 2000년 867ha에서 2008년 119,136ha로 매년 85.0%가 증가하여 저농약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표 1>.

표 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단위: 호, ha, 톤, %

구 분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전국 비중
유 기	농가수	353	2,748	3,283	5,403	7,167	7,507	8,460	48.7	0.7
	면 적	296	3,327	4,622	6,095	8,559	9,729	12,033	58.9	0.7
	(호당면적)	(0.8)	(1.2)	(1.4)	(1.1)	(1.2)	(1.3)	(1.4)		
	인증량	6,538	33,287	36,746	68,091	95,405	107,179	114,649	43.1	0.7
무 농 약	농가수	1,060	7,426	9,776	15,278	21,656	31,540	45,089	59.8	3.7
	면 적	876	6,756	8,440	13,803	18,066	27,288	42,938	62.7	2.4
	(호당면적)	(0.8)	(0.9)	(0.9)	(0.9)	(0.8)	(0.9)	(1.0)		
	인증량	15,694	120,358	167,033	242,068	320,309	443,989	554,592	56.1	3.2
저 농 약	농가수	1,035	13,127	15,892	32,797	50,812	92,413	119,004	81.0	9.8
	면 적	867	12,155	15,154	29,909	48,371	85,865	119,136	85.0	6.8
	(호당면적)	(0.8)	(0.9)	(1.0)	(0.9)	(1.0)	(0.9)	(1.0)		
	인증량	13,174	211,558	256,956	487,588	712,380	1,234,706	1,519,070	81.0	8.6
계	농가수	2,448	23,301	28,951	53,478	79,635	131,460	172,553	70.2	14.2
	면 적	2,039	22,238	28,216	49,807	74,995	122,882	174,107	74.4	9.9
	(호당면적)	(0.8)	(1.0)	(1.0)	(0.9)	(0.9)	(0.9)	(1.0)		
	인증량	35,406	365,203	460,735	797,747	1,128,093	1,785,874	2,188,311	67.4	11.9

주: 1) 전환기유기농산물 인증실적은 유기농산물에 포함시켜 제시함.

2) 전국 비중은 2008년 우리나라 전체 농가수, 경지면적, 생산량 대비 비중임. 생산량은 식량, 채소, 과일, 유지, 인삼, 버섯 생산량 합계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9).

2008년 호당 재배면적은 2000년의 0.8ha에 비해 0.2ha 증가한 1.0ha로 나타났다. 친환경인증단계별로 호당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무농약과 저농약의 경우 2000년 0.8ha에서 2008년 1.0ha로 0.2ha 증가하였으며, 유기농의 경우 2000년 0.8ha에서 2008년 1.4ha로 0.6ha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유기인증의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평균 생산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친환경 재배기술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과 인증물량이 전체농림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확대되었다. 2008년 기준으로 농가수 비중은 14.2%, 면적 비중은 9.9%, 인증량 비중은 11.9%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비중을 기준으로 인증단계별로 살펴보면 전체 9.9% 가운데 저농

약 6.8%, 무농약 2.4%, 유기 0.7%로 저농약 비중이 가장 크고, 유기농 비중이 낮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품목류별 재배면적을 보면(2008년 기준) 곡류 96,159ha, 과실류 29,034ha, 채소류 14,217ha, 수실류 9,733ha로 곡류가 전체의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곡류의 경우 전체 재배면적 96,159ha 가운데 유기가 6,099ha로 6.3%를 차지하고, 무농약 25,703ha(26.7%), 저농약 64,357ha(66.9%)으로 저농약과 무농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과실류의 경우 재배면적 29,034ha 가운데 유기가 2.1%, 무농약 5.9%, 저농약 91.9%로 저농약 인증 과실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2>.

표 2. 품목류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단위: ha, %

	곡 류	서 류	과실류	과채류	채소류	기 타	합 계
유 기	6,099 (6.3)	352 (7.9)	623 (2.1)	439 (5.4)	1,555 (10.9)	2,965 (13.4)	12,033 (6.9)
무농약	25,703 (26.7)	1,870 (41.7)	1,721 (5.9)	1,470 (18.1)	4,212 (29.6)	7,962 (36.0)	42,938 (24.7)
저농약	64,357 (66.9)	2,259 (50.4)	26,690 (91.9)	6,213 (76.5)	8,450 (59.4)	11,167 (50.5)	119,136 (68.4)
합 계	96,159 (100.0)	4,481 (100.0)	29,034 (100.0)	8,122 (100.0)	14,217 (100.0)	22,094 (100.0)	174,107 (100.0)

주: ()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유형별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9).

친환경농산물 품목류별 출하량을 보면(2008년 기준) 곡류 393,601톤, 과실류 552,215톤, 채소류 643,346톤으로 채소류가 전체의 2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3>.

- 채소류의 경우 전체 출하량 643,346톤 가운데 유기가 45,779톤으로 7.1%를 차지하고, 무농약 167,283톤(26.0%), 저농약 430,284톤(66.9%)으로 저농약과 무농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실류는 전체 출하량 552,215톤 가운데 유기가 1.5%, 무농약 3.9%, 저농약 94.6%로 저농약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표 3>.

표 3. 품목류·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단위: 톤, %

	곡 류	서 류	과실류	과채류	채소류	기 타	합 계
유 기	26,228 (6.7)	4,070 (5.2)	8,227 (1.5)	16,007 (5.0)	45,779 (7.1)	14,338 (7.2)	114,649 (5.2)
무농약	106,625 (27.1)	33,832 (43.5)	21,807 (3.9)	54,674 (17.0)	167,283 (26.0)	170,371 (85.3)	554,592 (25.3)
저농약	260,748 (66.2)	39,879 (51.3)	522,181 (94.6)	250,848 (78.0)	430,284 (66.9)	15,130 (7.6)	1,519,070 (69.4)
합 계	393,601 (100.0)	77,781 (100.0)	552,215 (100.0)	321,529 (100.0)	643,346 (100.0)	199,839 (100.0)	2,188,3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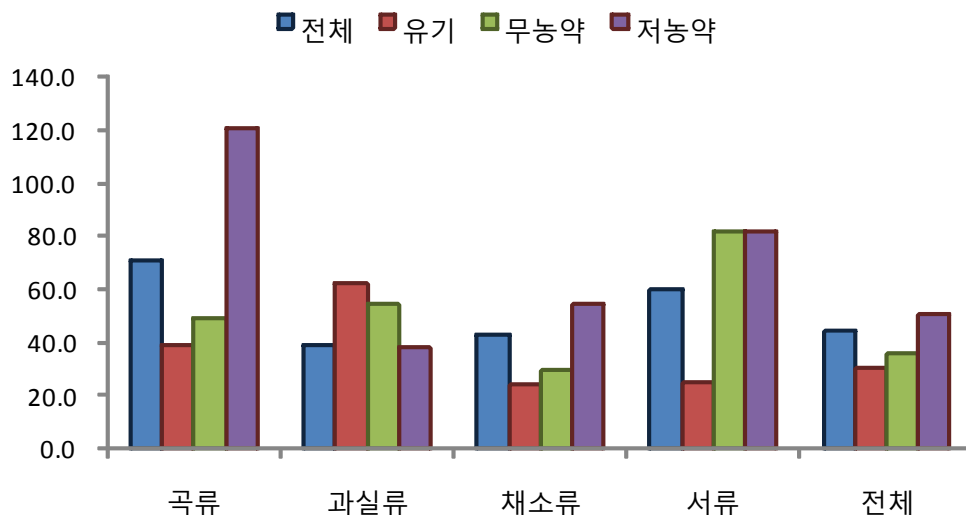
주: ()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유형별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9).

친환경농산물 주요 품목류의 인증단계별 최근 5년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의 증가율이 44.2%를 나타낸 가운데, 곡류가 70.7%로 가장 높고, 서류(59.7%), 채소류(42.8%), 과실류(39.2%)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 곡류의 경우 각 인증단계별 출하량이 전체 농림산물 평균 증가율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저농약이 120.7%로 크게 증가하였다.
- 서류의 경우 유기인증 출하량 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무농약과 저농약이 모두 약 82%의 증가율로 나타났다.

그림 1. 주요 품목류의 인증단계별 출하량 최근 5년간 증가율



주: 주요 품목류를 나타내었으며, 채소류에는 과채류가 포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각 연도).

- 채소류는 증가율의 변동이 크지 않았으며, 유기의 경우 전체 유기 농산물 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았으나 무농약과 저농약은 높게 나타났다.
- 과실류는 다른 품목류와 달리 저농약 출하량 증가율이 전체 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았으나 유기와 무농약이 62.1%, 54.8%로 높게 나타났다.

□ 지역별 친환경농업 실천 격차 보다 심화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보면, 전남이 총 101,256ha로 전국에서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의 58.2%로 가장 높았고, 경북 19,967ha(11.5%), 경남 11,613ha(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을 보면 전남이 32.5%로 전체 인증면적 비중 9.9%를 크게 웃돌았고, 경북 7.1%, 경남 7.0%, 강원 5.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친환경 실천면적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3.5%로 전라남도와의 약 29%p의 격차를 보였고 이 같은 격차는 2006년의 7.3%p에 비해 크게 심화되었다.

시군별로는 전남 해남군이 14,236ha로 시군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실천하고 있으며, 전남 시군이 상위 5위권을 모두 차지하였다. 2008 시군별 면적은 2006년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각 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에 따라 지자체별 인증실적의 격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시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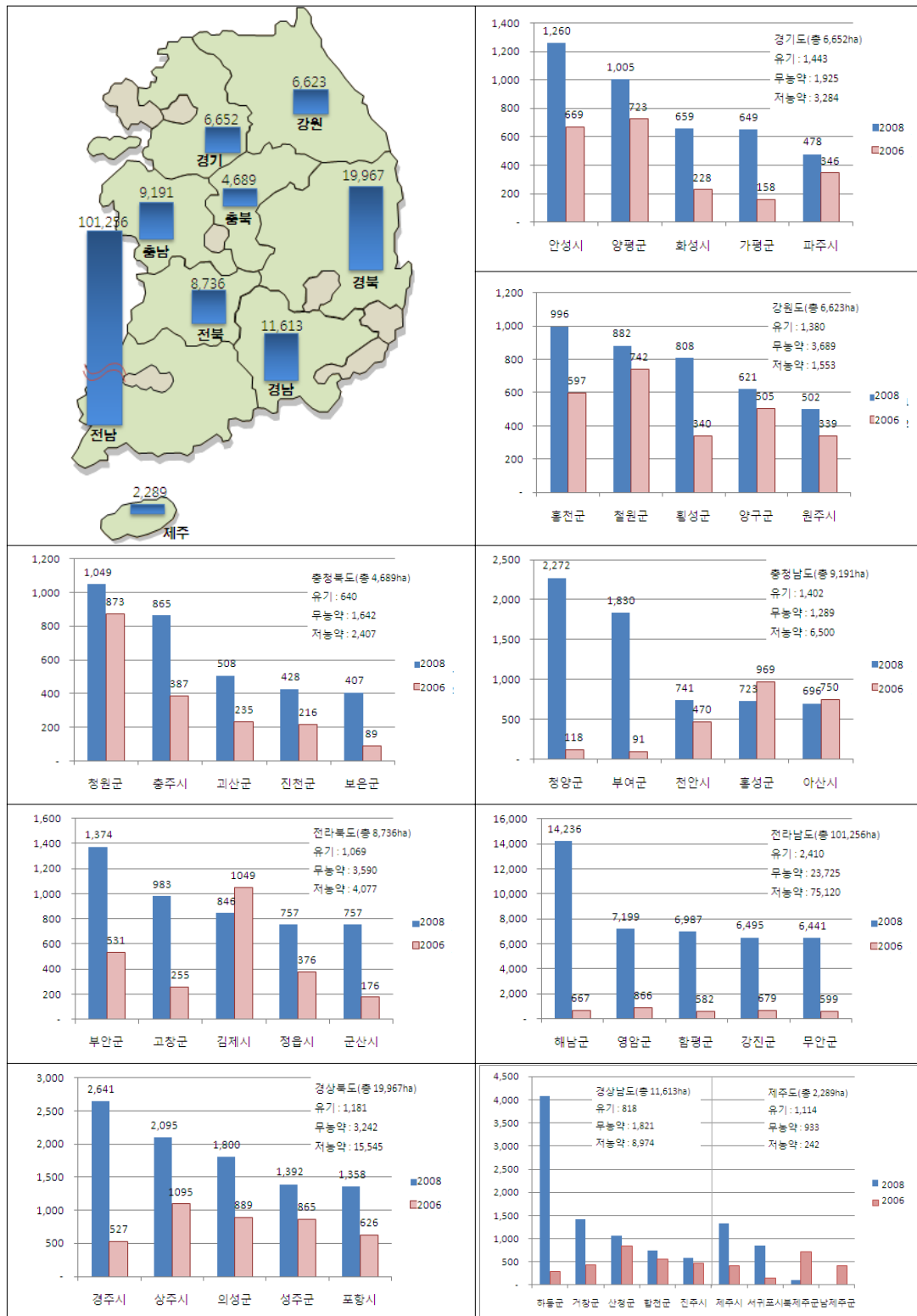
단위: 호, ha, 톤

구분		유기	무농약	저농약	계	인증면적 비중	경지면적 비중
전남	농가수	1,084	23,988	79,335	104,407	58.2	32.5
	면적	2,410	23,725	75,120	101,256		
	인증량	11,952	239,914	744,451	996,317		
경북	농가수	1,491	4,589	14,674	20,754	11.5	7.1
	면적	1,181	3,242	15,545	19,967		
	인증량	10,821	60,793	414,668	486,283		
경남	농가수	904	2,702	7,392	10,998	6.7	7.0
	면적	818	1,821	8,974	11,613		
	인증량	9,153	39,658	77,291	126,101		
강원	농가수	886	3,009	1,608	5,503	3.8	5.9
	면적	1,380	3,689	1,553	6,623		
	인증량	17,262	42,858	29,193	89,313		
전북	농가수	695	3,542	3,888	8,125	5.0	4.2
	면적	1,069	3,590	4,077	8,736		
	인증량	11,265	35,590	65,242	112,097		
제주	농가수	221	632	276	1,129	1.3	4.0
	면적	1,114	933	242	2,289		
	인증량	6,738	14,843	4,843	26,423		
충북	농가수	672	2,133	2,842	5,647	2.7	3.8
	면적	640	1,642	2,407	4,689		
	인증량	16,866	42,155	42,414	101,436		
충남	농가수	1,395	1,244	4,170	6,809	5.3	3.8
	면적	1,402	1,289	6,500	9,191		
	인증량	10,688	18,832	80,915	110,435		
경기	농가수	923	2,079	3,000	6,002	3.8	3.5
	면적	1,443	1,925	3,284	6,652		
	인증량	18,214	46,763	36,058	101,035		
계	농가수	8,460	45,089	119,004	172,553	100.0	9.9
	면적	12,033	42,938	119,136	174,107		
	인증량	114,649	554,592	1,519,070	2,188,311		

주: 광역시의 자료는 전체합계에 포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9).

그림 2. 전국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2008년)



주: 각 도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 2008년 기준 5위 이상인 시군만 제시하였으며, 제주도는 제외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9).

3.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 및 전망

□ 2008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3조 2천억 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친환경 농법별 재배면적에 단수를 적용하여 생산량을 추정하고 농법별로 시장에 판매되는 양을 추정한 후, 유통업체의 수수료, 유통비용,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하였다.

2008년 기준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 추정결과 곡류의 유통규모는 약 7,751억 원으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의 24.3%를 차지하였고, 이 중에서 쌀이 7,21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채소류는 1조 814억 원으로 전체 유통규모의 3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과실류가 전체 유통규모의 28.4%인 9,07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따라서 2008년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총규모는 2007년보다 46.5% 증가한 3조 1,9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인증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2008년 멜라민, 광우병 파동 등으로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표 5>.

표 5.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2008년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곡 류		채소류	과실류	서류	특작기타	계
		쌀					
유통규모	7,751	7,218	10,814	9,074	1,144	3,143	31,927
비중(%)	24.3	22.6	33.9	28.4	3.6	9.8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친환경농산물의 향후 시장 유통규모는 친환경농업 발전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향후 2020년까지의 친환경농산물 시장 유통규모 전망치는 친환경농산물 시장(소매단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세가 점차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추정하였다. 더 나아가 2010년 저농약 신규인증제 폐지, 2015년 저농약 인증제 폐지 등의 예상되는 중요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였다.

2009년의 친환경농산물 거래규모는 2008년 대비 17% 정도 증가한 3조 7,355억 원으로 증가하며 저농약 신규 인증제가 폐지되는 2010년에는 4조 940억 원, 2013년에는 5조 95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저농약 인증제 자체가 폐지되는 2015년에는 저농약 농가 일부가 무농약 인증이나 유기 인증으로의 전환을 가정하면 2013년보다 감소한 4조 9,216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점차 회복되어 2020년에는 전체 농산물 시장규모의 20%인 7조 676억 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3	2015	2020
곡 류	5,242	7,751	9,069	10,090	13,462	13,834	19,866
쌀	4,660	7,218	8,445	9,370	12,396	12,605	18,100
채소류	6,238	10,814	12,653	13,798	17,008	16,479	23,665
과실류	7,134	9,074	10,617	10,912	9,937	5,047	7,248
서 류	590	1,144	1,338	1,527	2,180	2,479	3,559
특작·기타	2,596	3,143	3,678	4,613	8,369	11,377	16,337
총 계	21,799	31,927	37,355	40,940	50,955	49,216	70,676

주: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종류별로 증가율이 체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음. 2015년 이후 저농약인증 농산물 중 무농약인증 진입은 곡류 30%, 채소류 35%, 과실류 20%, 서류 35%, 특작류 20%로 가정하여 전망하였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2009년의 친환경농산물 거래규모의 인증단계별 구성비를 보면 유기 8%, 무농약 29%, 저농약 63%로 전망되며, 저농약 신규인증이 폐지되는 2010년에는 유기 10%, 무농약 35%, 저농약 55%로 저농약은 비중은 줄어든데 반해 유기와 무농약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저농약 인증 비중

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는 2015년 유기 23%, 무농약 77%의 비중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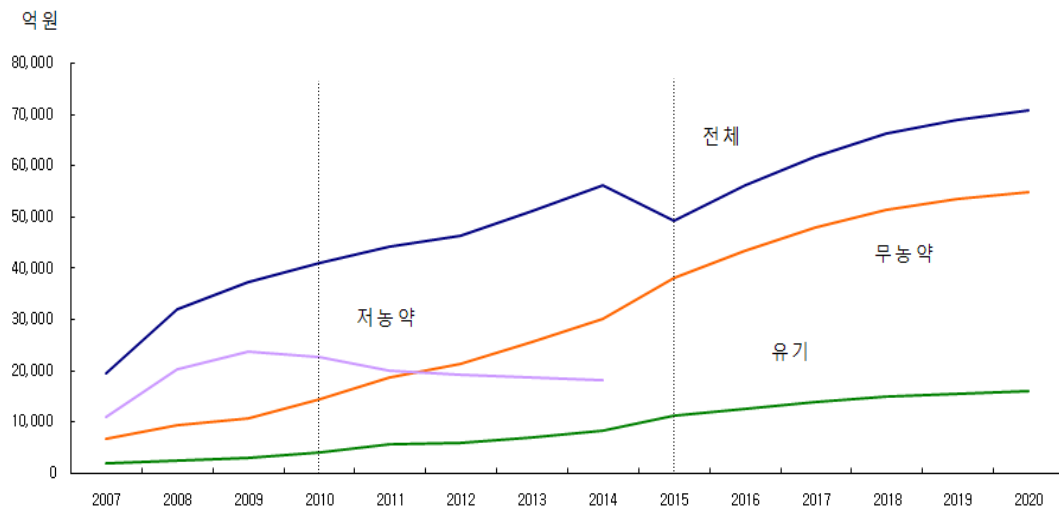
표 7.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2015년 이후 저농약 폐지시)

단위: 억 원

	2007	2008	2009	2010	2013	2015	2020
유기	1,721	2,536	2,967	4,090	7,037	11,134	15,989
무농약	6,312	9,193	10,756	14,345	25,368	38,082	54,687
저농약	13,766	20,198	23,632	22,505	18,550	-	-
계	21,799	31,927	37,355	40,940	50,955	49,216	70,676

주: 저농약 인증의 경우 2010년부터 신규인증 중단, 2015년 이후 저농약 완전 폐지를 적용함.

그림 3.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2015년 이후 저농약 폐지시)



4. 세계의 유기농업 실천현황 및 시장규모¹⁾

□ 세계 120개국, 3,223만ha에서 유기농업 실천

세계 유기농업은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120개국 이상이 실천하고 있으며 경지면적과 농가수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세계 유기농업 실천 현황을 보면 적어도 1,219,526농가, 3,223만ha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대상 국가 농경지 면적의 약 0.7% 규모에 해당한다<표 8, 그림 4>.

대륙별로 보면 오세아니아 대륙이 1,210만ha로 전세계 유기농 실천면적의 약 3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유럽 780만ha(24%), 라틴아메리카 640만ha(20%), 아시아 290만ha(9%), 북아메리카 220만ha(7%), 아프리카 88만ha(3%)로 조사되었다<표 8,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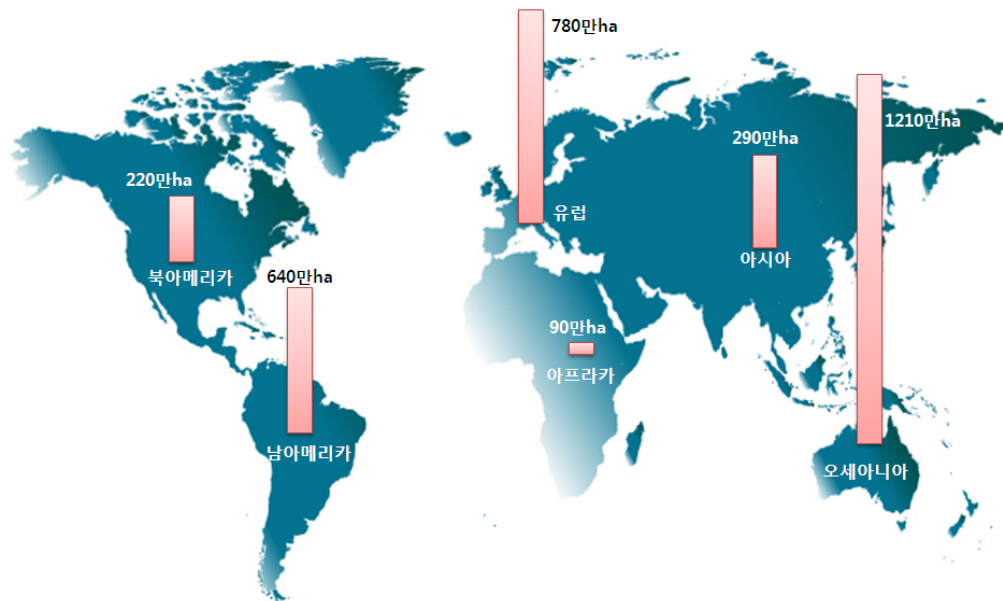
표 8. 대륙별 유기농업 실천 현황(2007년 기준)

구 분	실천면적 (ha)	구성비(%)	농가수 (호)	구성비(%)	대륙별 경지면적 대비 비중(%)
아프리카	877,329	2.72	529,986	43.46	0.1
아시아	2,881,745	8.94	234,147	19.20	0.2
유 럽	7,758,526	24.07	213,297	17.49	1.9
라틴아메리카	6,402,875	19.87	222,599	18.25	1.0
북아메리카	2,197,077	6.81	12,275	1.00	0.6
오세아니아	12,110,758	37.58	7,222	0.59	2.6
계	32,228,310	100.00	1,219,526	100.00	0.7

자료: IFOAM(2009).

1) 세계 유기농업 실천현황 및 시장규모는 2009년 IFOAM에서 발간한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009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음. 단, 미국은 USDA가 2009년 6월 발표한 “Emerging Issues in the U.S. Organic Industry” 경제정보자료를 참조하였고, 중국과 일본은 해당 정부의 최근연도 공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4. 세계의 유기농업 실천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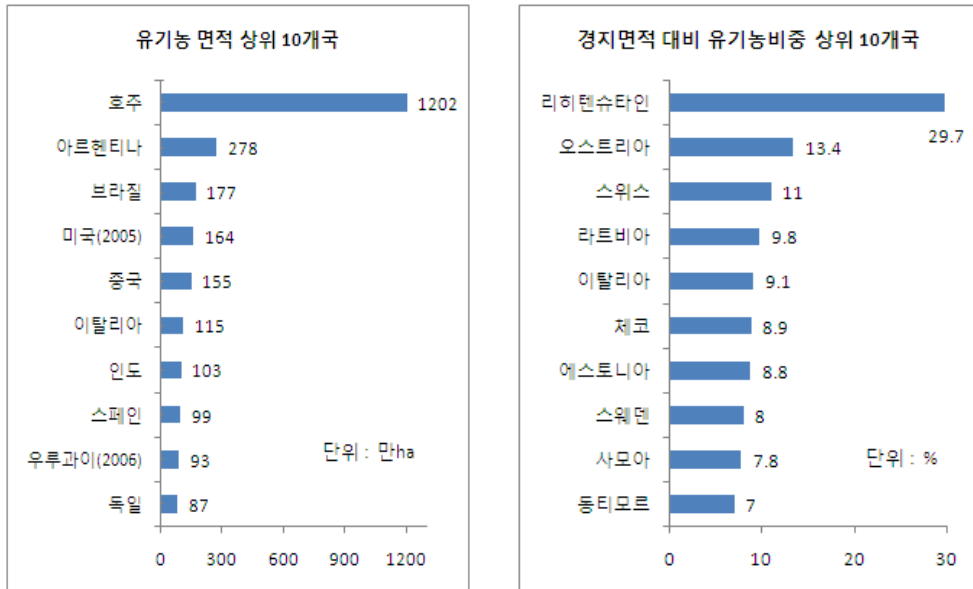


자료: IFOAM(2009).

대륙별 농경지 면적 대비 유기농 면적 비중을 보면 오세아니아가 2.6%로 가장 높고, 유럽이 1.9%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의 유기농 인증비중의 경우 유럽 전체로 보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을 비롯한 몇몇 국가의 유기농 면적 비중이 10%를 넘고 있고, 유럽연합 회원국들만 보면 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 유기농 실천면적을 보면 호주가 1,202만 ha로 가장 넓고, 아르헨티나가 278만ha, 브라질이 177만ha, 미국이 164만ha, 중국 155만ha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행농법 대비 유기농 실천 농가수와 면적비중 측면에서 보면 유럽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5>.

그림 5. 유기농업 실천면적 및 유기농업 비중 상위 10개국(2007년 기준)



자료: IFOAM(2009).

□ 2007년 세계 유기농 제품 시장유통 규모 약 43조원

세계의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활성화됨에 따라 매년 40억 달러 이상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유기농 제품 시장 유통규모는 2001년에 209억 달러(약 27조 원)에서 2007년에는 2001년의 두 배 이상인 461억 달러(약 43조 원)로 증가하였다.

세계 유기농 산업은 2005년 이후 심한 공급부족을 겪고 있으며, 유기농산물 수요는 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호주도 유기농 식품의 중요한 생산국이자 수출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표 9. 유럽 주요국과 북미지역의 유기농업 실천현황(2007년기준)

구 분	유기농면적 (ha)	경지면적 대비 비중(%)	농가수 (호)	시장규모 (백만달러)	1인당 판매량 (달러)
이탈리아	1,150,253	9.1	45,231	2,561	44
독 일	988,323	3.9	18,226	822	18
스페인	865,336	5.1	18,703	7,259	88
영 국	660,200	4.2	5,506	3,502	58
프랑스	557,133	1.9	11,978	2,602	41
오스트리아	372,026	13.4	19,997	1,012	122
우크라이나	312,890	8.9	1,318	71	7
체 코	285,878	1.9	11,887	68	1
그리스	278,397	3.0	23,769	79	7
스웨덴	249,872	0.6	92	7	-
폴란드	248,104	8.0	3,028	666	73
덴마크	233,475	6.4	1,949	96	10
핀란드	173,463	9.8	4,108	-	-
헝가리	148,760	6.5	4,406	85	16
포르투갈	145,393	5.5	2,835	794	145
스위스	124,263	0.6	16,364	3	-
터 키	122,270	2.9	1,242	27	3
슬로바키아	117,906	6.3	280	6	1
라트비아	116,641	11.0	6,199	1,081	144
네덜란드	48,863	4.7	2,611	110	23
노르웨이	47,019	2.5	1,374	679	41
아일랜드	41,122	0.1	1,134	103	23
벨기에	32,628	2.4	821	388	37
리히텐슈타인	1,048	29.7	39	4	118
미 국	1,640,804	0.5	8,493	21,100	-
캐나다	556,273	0.8	3,782	-	-

주: 미국의 생산자료는 2005년기준, 미국의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영국의 시장규모 및 1인당 판매량은 2006년 기준임.

자료: 1) IFOAM(2009).

2) USDA ERS(2009).

□ 유럽의 유기농 시장규모 222억 달러, 매년 10% 정도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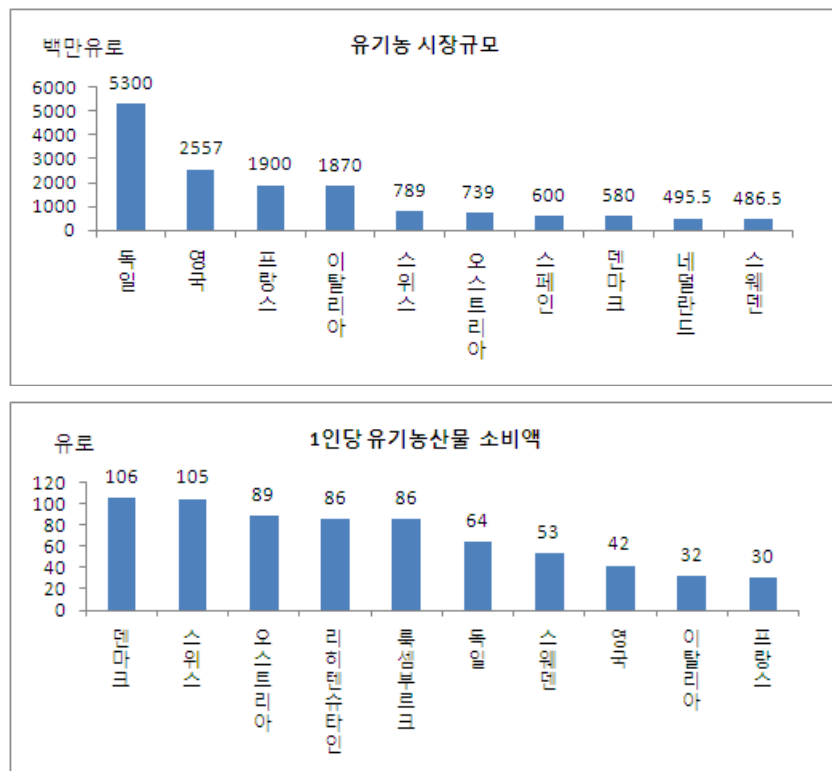
유럽의 유기농 시장은 세계 유기농 시장의 50% 이상으로 북미 시장을 능가하는 가장 큰 규모이다. 총 739만ha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유럽의 시장규모는 2007년에 222억 달러(약 2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이중 대부분이 서유럽에 집중되어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4개국이 유럽 시장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독일이 연간 73억 달러(약 6.8조 원), 영국이 35억 달러(약 3.3조 원), 프랑스가 26억 달러(약 2.4조 원), 이탈리아가 25.6억 달러(약 2.4조 원)에 이른다<그림 6>.

유럽의 유기농산물 시장은 매년 10% 정도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서유럽 국가에서는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 상당 부분을 타 대륙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인당 소비액의 경우 덴마크가 연간 약 106유로(13.5만 원)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순으로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그림 6. 유럽 주요국의 유기농 시장규모 및 일인당 유기농산물 소비액(200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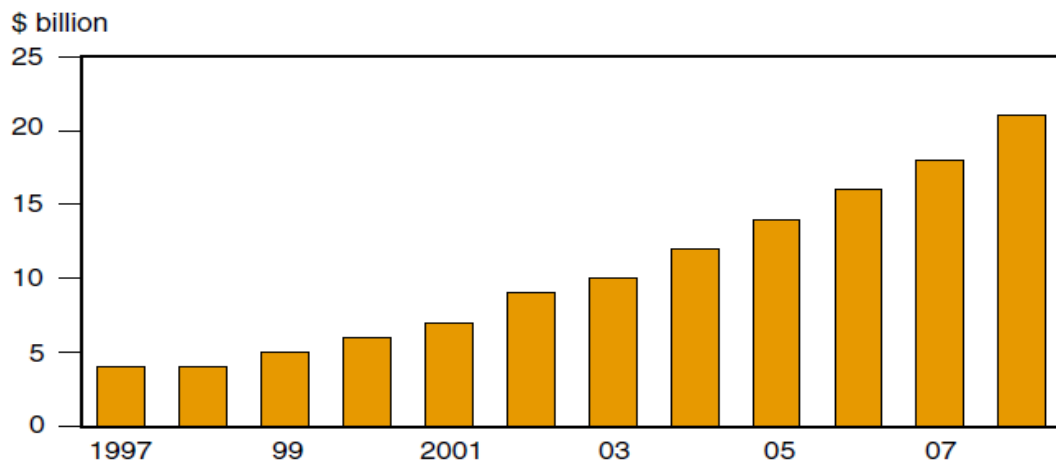
자료: IFOAM(2009).

□ 2008년 미국 유기농 식품 판매액 1997년의 5배 수준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유기농 생산은 2배 이상 증가한 데 반해 소비 시장은 미국 농무부(USDA)의 유기규정 프로그램과 유기인증마크 도입에 기인하여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해 왔다.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유기농의 소매단계 판매는 미국 전역의 도시, 대학가, 그리고 대형 박스형 상점(big-box stores)에서 ‘자연제품’ 틈새시장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기농 식품판매는 1997년의 36억 달러에서 2008년 211억 달러로 다섯 배 이상 성장하였다<그림 7>.

그림 7. 연도별 미국 유기농식품 판매액



자료: USDA ERS(2009).

미국 전체농업에서 유기농업 실천농가 비율은 0.5%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미국농무부 경제연구소, USDA ERS). 2005년 기준 부문별로 보면 채소 재배면적의 약 5%와 과일류와 견과류의 2.5% 정도가 유기농법으로 재배되고 있으나, 주요 작물인 옥수수과 대두작물은 0.2% 정도만이 인증된 유기농업 시스템 하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행농법 곡물생산자들은 다양한 금융적 위험과 생산감소 등의 재배기술 등 기타 여러 가지 위험요소 등의 요인으로 유기농 실천농가 확산의 애로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곡물의 유기농업 재배비율이 낮아 유기곡물이 부족하여 유기축산 생산 농가들이 알맞은 사료용 곡물을 구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는 미국 유기축산 부문 성장의 지속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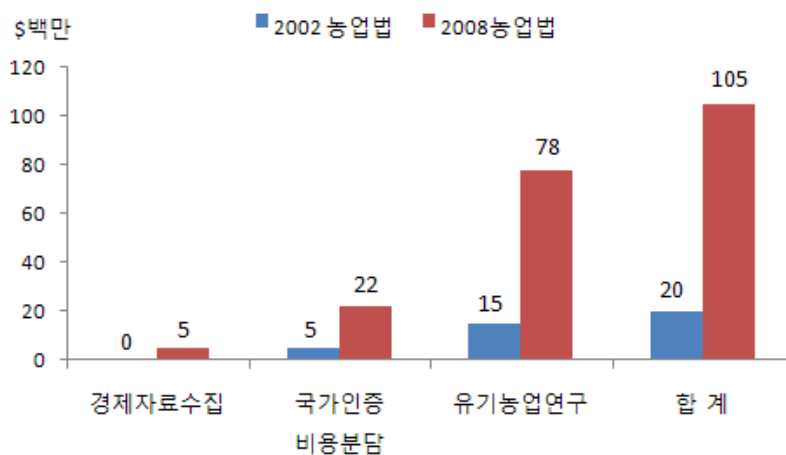
미국 유기농 제품 수요가 국내공급을 초과함에 따라 유기농 수입량이 증가하여 왔다. USDA 인증단체가 인증한 전세계의 27,000명의 생산자 및 취급업자 가운데 16,000명만이 미국에 있고 나머지는 캐나다, 이탈리아, 터키 등 100개 이상의 국가에 달한다.

미국농무부 해외농업처(USDA FAS)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기농 수입액이 2002년 10~15억 달러이고, 수출액은 125~250백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다(USDA-FAS, 2005). 유기농 수입은 2002년 이후 실질적으로 증가하여왔고, 신선과일과 채소,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커피, 차, 코코아, 그리고 열대 농산물), 그리고 대두를 포함한다.

미국은 유기농산물 공급부족에 대응하여 2008년 의회는 유기농업 연구와 식량, 보존, 그리고 에너지 법안의 인증비용 분담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후원하였으며, 유기농 생산과 전환을 위해 6년에 걸쳐 최고 8만 달러까지, 연간 2만 달러 한도의 지원금(payments)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유기농업에 대한 정부지출은 2002년 2천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5배 이상인 1억 5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그림 8>.

그림 8. 유기농업에 대한 정부지출 변화(2002-2008년)



자료: USDA ERS(2009).

□ 중국 녹색식품 수출액 급증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녹색식품 육성전략에 힘입어 2006년 녹색식품 생산업체수 4,615개, 상품수 1만 2,868개, 생산량 7,200만톤, 검사면적 1,000만ha에 이르렀으며, 생산량 기준으로 1997년 이후 매년 29%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중국의 녹색식품 생산량은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생산량(1,128,093톤)의 무려 64배, 친환경농업 인증면적(74,995ha)의 약 133배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표 10>.

표 10. 중국의 녹색식품 생산, 소비, 수출현황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
업체수(개)	544	619	742	964	1,217	1,756	2,047	2,836	3,695	4,615	30.5
상품수(개)	892	1,018	1,353	1,831	2,400	3,046	4,030	6,496	9,728	12,868	39.9
생산량(만톤)	630	840	1,106	1,500	2,000	2,500	3,260	4,600	6,300	7,200	29.2
소비액(억위엔)	240	285	302	400	500	597	723	860	1,030	1,500	24.6
수출액(억달러)	0.7	0.9	1.3	2.0	4.0	8.4	10.8	12.5	16.2	19.6	37.4
검사 면적	(만무)	3,213	3,385	3,563	5,000	5,800	6,670	7,710	8,940	9,800	20.9
	(만ha)	214	226	238	333	387	445	514	596	653	

주: 1畝(1무≒200평).

자료: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2009).

중국의 녹색식품 소비액은 1997년 이후 매년 25%씩 증가하여 2006년에 1,500억 위엔(약 18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수출액도 매년 37%씩 증가하여 2006년에 19.6억 달러(약 1.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본, 해외 유기농인증 전체 유기농 인증물량의 97.3%에 달해

일본의 유기농산물 인증물량은 국내인증이 2007년 53,447톤인데 반해, 해외인증은 2007년 1,901,519톤으로 해외인증이 국내인증 물량의 약 35.6배, 전체 유기농 인증물량의 97.3%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11>.

표 11. 일본의 유기농산물 인증물량

구 분	국내인증(톤)						해외인증(톤)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채소	24,545	28,125	29,674	29,107	29,949	32,780 (61.3)	13,059	26,994	63,123	79,917	106,119	82,448 (4.3)
과일	1,939	2,163	2,029	2,222	1,766	2,199 (4.1)	10,555	18,736	11,233	67,512	131,538	156,764 (8.2)
쌀	12,338	10,838	10,400	11,369	10,811	10,828 (20.3)	2,031	2,604	4,581	3,171	21,777	2,851 (0.1)
밀	559	858	732	655	558	721 (1.3)	1,086	1,732	2,414	3,634	7,528	10,170 (0.5)
대두	945	786	639	877	974	986 (1.8)	44,734	54,109	70,975	35,362	63,647	94,574 (5.0)
녹차	1,246	1,487	1,664	1,610	1,538	1,702 (3.2)	1,224	964	1,848	226	449	83 (0.0)
기타 ¹⁾	2,188	2,351	2,291	2,332	2,999	4,231 (7.9)	16,331	192,784	295,476	1,250,255	964,208	1,554,629 (81.8)
계	43,759	46,609	47,429	48,172	48,595	53,447 (100.0)	89,019	297,923	449,650	1,440,177	1,295,266	1,901,519 (100.0)

주: 1) 기타는 홍차, 커피원두, 기타 두류, 너트류, 잡곡류, 설탕, 곤약감자, 팜 프루츠 등을 포함함.

2) ()는 농산물 종류별 비중을 나타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09).

농산물 종류별로는 국내인증의 경우 채소류가 32,780톤(61.3%)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쌀 10,828톤(20.3%), 과일 2,199톤(4.1%), 녹차 1,702톤(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인증의 경우 채소류 82,448톤(4.3%), 과일 156,764톤(8.2%)을 비롯하여 설탕, 커피, 홍차 등 기타 품목 1,554,629톤(81.8%)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해외인증 물량이 크게 확대되고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다.

2007년 일본의 유기농산물 인증물량은 53,447톤으로 총 생산량의 0.18%를 차지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녹차가 1.81%로 가장 높고, 채소 0.20%, 쌀 0.12% 등으로 나타났다.

표 12. 일본의 유기농산물 인증물량(2007년)

단위: 톤, %			
	총생산량	유기인증물량(국내)	유기비중
채 소	16,265,000	32,780	0.20
과 수	3,492,000	2,199	0.06
쌀	8,714,000	10,828	0.12
밀	1,104,000	721	0.07
대 두	227,000	986	0.43
녹 차	94,100	1,702	1.81
기 타	141,000	4,231	3.00
합 계	30,037,100	53,447	0.18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09).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인증실적은 국내인증이 2007년 133,909톤으로 매년 11.9%의 증가세를 보였고, 해외인증이 2007년 164,804톤으로 매년 54.1%의 증가세를 보여 유기가공식품에 있어서도 수입 식품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국내인증 가공식품 중에서는 두부가 55,181톤(41.2%)으로 가장 많았고, 두유 18,832(14.1%), 음료 8,942톤(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인증 가공식품의 경우 과실음료의 인증실적이 전년대비 55.8% 급증하여 음료가 12,251톤(7.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3. 일본의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인증실적

구 분	국내인증(톤)					해외인증(톤)				
	2001	2004	2005	2006	2007	2001	2004	2005	2006	2007
냉동야채	1,128	200	119	278	348	11,862	5,612	5,047	5,450	4,725
야채통조림	13	40	12	6	21	532	4,642	5,575	6,409	4,510
기타 야채가공품	802	1,544	1,499	884	1,082	239	2,058	2,306	2,029	5,361
음료	4,739	13,303	7,256	7,857	8,942	912	2,013	160,987	8,387	12,251
두유	-	13,744	24,932	21,971	18,832	-	-	-	-	30
두부	44,034	59,422	70,025	73,570	55,181	-	-	-	-	-
нат또	10,154	9,814	9,908	36,919	7,722	-	-	-	107	141
된장	1,887	3,337	3,476	3,396	3,004	273	472	579	803	856
간장	3,093	6,054	6,405	6,655	5,444	-	176	-	128	-
면류	103	-	-			823	-	-		
녹차	1,270	1,296	1,423	1,132	1,231	0	390	37	156	230
기타 농산가공품	9,532	32,932	24,757	34,787	32,102	19,715	72,651	41,527	46,308	136,700
계	76,755	141,686	149,812	187,455	133,909	34,356	88,023	216,058	69,777	164,804
연평균증가율(%)	11.9					54.1				

주: 기타 농산가공품에는 기타 과수가공품, 기타 대두가공품, 야채수자, 원두커피, 너트류 가공품, 곤약, 식용식물유지, 설탕, 당밀 등을 포함함.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2009).

5. 시사점

□ 향후 상당기간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지속적 증가 전망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인증면적 기준으로 2000년대 초반(2000~2003년)에 매년 122.7%의 급증세를 보였으며 최근 5년동안(2004~2008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51.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친환경농업 비중은 농가수 기준 14.2%, 면적기준 9.9%, 인증량 기준 11.9%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향후 2020년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농약 인증 폐지를 대비한 대책마련 필요

인증단계별로 보면 전체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68.4%, 무농약농산물 인증이 24.7%, 유기농산물 인증이 6.9%로 저농약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라 2010년 이후 저농약 신규 인증이 중단되고, 2015년 이후 저농약 인증이 완전히 폐지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저농약 인증농가의 신속한 유기·무농약 인증 전환과 유기농업 실천농가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지자체의 차별화된 친환경농업육성정책 필요

도별 친환경농업 인증실적을 보면 지자체의 친환경농업육성 전략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중이 9.9%를 나타낸 가운데, 전남 32.5%, 경북 7.1%, 경남 7.0%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경기도가 3.5%로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지역단위에서 친환경농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중요한 관건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위주의 육성정책을 추

진하는 경우 저농약 인증만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특정 품목(특히 벼)에 집중되어 지역적 특색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색에 맞는 품목과 브랜드 발굴을 통한 지역별로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육성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 친환경농산물의 주류시장 진입에 따른 유통 및 소비대책 필요

2008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약 3조 2천억 원에 달해 전체 농산물시장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여 틈새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에는 약 7조 1천억 원으로 농산물 시장거래액의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기, 무농약 농산물의 수요창출(학교급식 확대 등)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선진국의 유기식품 분야에 관한 심층연구 필요

세계 유기농산물 생산은 2008년 기준 약 120개국에서 약 3,223만ha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유기식품 및 음료 시장유통 규모도 약 43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유기농업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매년 20% 내외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유기농산물 시장규모의 성장세는 향후 국내 유기농산물 생산 및 소비확대에도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으므로 유기농산물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등 선진국 유기농 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고품질 유기농산물 및 가공품의 생산을 통한 수출 전략 필요

중국의 수출위주의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식품(녹색식품) 육성전략은 향후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발전에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대외적 위협 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의 해외인증 급증과 유럽 선진국, 미국의 유기농산물 공급부족

현상은 우리나라가 유기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특히 일본은 해외인증 유기농산물과 가공품의 해외의존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유의 고품질 유기농산물 및 가공품을 개발·육성하여 일본과 유럽,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공세적인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속보』 발행 목록

2009년

- 제58권 최근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7권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2009~2019 (조영수, 박상미)
- 제56권 농림사업의 연령제한 실태와 개선방안 (최경환)
- 제55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영향분석 (허덕, 이정민, 이형우)
- 제54권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계의 인지도 조사 결과 (김창길, 주현정)
- 제53권 국제곡물가격이 곡물가공품 가격에 미치는 파급시차 (김태훈, 김배성)

2008년

- 제52권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 제51권 미국 ‘2008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어명근)
- 제50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경제적 피해 계측 (우병준, 이형우, 황윤재, 김진년)
- 제49권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의 파급 영향과 시사점 (허덕, 이정민)
- 제48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양계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허덕, 우병준, 이형우)
- 제47권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허덕, 김현중)
- 제46권 유가상승이 시설채소 농가에 미치는 영향 (정은미, 정학균, 김수림, 윤선희)
- 제45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2007년

- 제44권 사육 여건 변화가 양돈소득에 미치는 영향 (허덕, 정민국, 김현중)
- 제43권 금년 김장철 채소 가격 및 김장 수요 전망 (박기환, 송성환)
- 제42권 해외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와 시사점 (신용광, 황윤재)
- 제41권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김창길, 김태영, 이상건)
- 제40권 최근 소값 동향 분석 (허덕, 송주호, 정민국, 이정민)
- 제39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 제38권 미국 정부의 2007년 농업법 제안과 시사점 (임송수)
- 제37권 기후변화협약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김창길, 김태영, 신용광)
- 제36권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김수석, 박석두)

2006년

- 제35권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박대식, 마상진)
- 제34권 DDA 협상 중단의 의미와 전망 (임송수)
- 제33권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김병률, 김배성, 조영수, 이용호)
- 제32권 국내외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 및 인증 실태 (김창길, 김태영)
- 제31권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 (최세균, 허주녕, 박성진)

제30권 농업부문 한·칠레 FTA 이행 2년의 평가 (최세균)

2005년

- 제29권 김치 안전성 파동과 김장 수요 전망 (송성환, 김연중)
- 제28권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개최와 과제 (김영훈)
- 제27권 쌀 공공비축제 도입과 수확기 시장안정 대책 방향 (박동규)
- 제26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태도 (강창용, 고욱)
- 제25권 중국 위안화 절상이 국제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배성, 최정섭)
- 제24권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쟁점 (김정호)
- 제23권 한·칠레 FTA 이행 1년의 농업부문 평가 (최세균, 허주녕)
- 제22권 농업인의 의식 변화와 농정 현안에 대한 인식 (김동원, 박혜진)
- 제21권 친환경과실 소비 실태 및 전망 (김경필, 박미성)
- 제20권 독일과 프랑스 농민단체의 농정참여제도 (김수석)
- 제19권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본 2005년 북한의 농정전망 (권태진)
- 제18권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기회, 중국 (권오복)

2004년

- 제17권 농지제도 개편의 방향과 추진방안 (박석두, 송미령, 김수석, 김홍상)
- 제16권 쌀농가 소득·경영안정 직불제 도입과 양곡관리 제도 개편 (박동규)
- 제15권 2004년산 쌀 수급 및 가격 전망 (김명환, 김혜영)
- 제14권 쌀 협상 시한에 관한 견해 분석 (임송수)
- 제13권 국제유가 상승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이용선, 김배성, 정학균)
- 제12권 기업농의 조건: 가능성과 전망 (김정호)
- 제11권 미 광우병 발생 이후 쇠고기 소비 변화 (신승렬, 송주호, 김철민)
- 제10권 농업협상 기본골격 초안의 평가와 시사점 (임송수, 서진교, 김상현, 임소영)
- 제9권 쌀 농업의 규모 효과와 구조 정책 (김정호)
- 제8권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김태곤, 정정길)
- 제7권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법의 생산비 비교 (김창길, 김태영)
- 제6권 최근 가축질병 발생이 육류 소비에 미친 영향 분석 (신승렬, 송우진, 이형우)

2003년

- 제5권 수요처별 수입쌀 구매의향 전망 (이계임, 김민정)
- 제4권 농가부채문제 진단과 중장기 대응방향 (박성재, 황의식)
- 제3권 미국과 EU의 가격·소득지지정책 (김태곤)
- 제2권 유럽연합의 2003년 개혁안과 농업협상의 관계 (임송수)
- 제1권 쌀 수매제도의 소득지지효과 (김명환)